

교회목표

- 1. 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0년도 표어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전1:1)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목회자신학세미나 · 살롬경로대학 개강하다

제 18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지난 18일(월) 서울 강남YMCA 대강당에서는 전국에서 모여온 목회자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이 시작 되었다. 제 1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정보화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이라는 주제로 11월 20일(월)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가 진행되며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 될 것이다.

한편 살롬경로대학도 개강했다. 살롬경로대학의 한 학기는 10주간동안 진행되며,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이 겪고있는 문제들과 역할상실에서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이 함께해야 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소서-

오는 25일(월) 한국 장로교 28개 교단 연합 공동 예배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서울 소망교회에서 열린다.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4천명의 총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찬예식이 거행되고 장로교 일치와 연합을 위한 대화 선언문을 발표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85회 총회가 25일부터 29일까지 위의 주제를 갖고 열리게 되는데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 박철훈·오정수 장로가 서울강남노회 총대로 참여한다. 금년 총회 주제 선정 및 해설집 집필도 이종윤 목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리석은 우상숭배

성경 : 이사야 40장 18 ~ 26절



이중운 목사

본문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사람들, 곧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며 그것에 경배한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열방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정도의 신인 줄 생각합니다(37:12-13).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 곧 하나님 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금, 은 나무로 만든 우상은 모두가 헛된 것이며 무력한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우상은 장인(쇠를 녹이는 자, 조각하는 자)과 장색(쇠를 다듬는 자)이 만든 것입니다. 삽계명의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신랑으로 두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른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신 아닌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 우상은 경멸일만한 것이다

종교학에는 다신교가 있고 단일신교가 있으며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다신교는 여러 피조물들을 신으로 삼는, 어떤 면에서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고 단일신교는 많은 신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신을 택하는데

예를 들면 수호신, 지방신, 그로스 바알등의 신을 선택하여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곧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며 한 나라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온 천지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자 결코 창조자가 아닙니다.

2 우상 숭배의 오류

(1) 율법의 교훈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21절).

우상 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삽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 태초부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나타났이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1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3)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위대하시다.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22절).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이 저 높은 궁창에 앉으셔서 땅의 거민을 때루기처럼 쉽게 다스리고 계심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귀인들이나 사사들을 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을 든든히 잡았다는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섬기고 뿌려진 씨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입감을 무시면 그 뿌리와 줄기가 말라 회오리바람에 날려가는 초개 같이 날아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25절).

3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물 창조로 확증한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26절).

피조물 중 별들의 세계는 가장 신비롭습니다.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으로 연구를 해와 별의 세계는 아직 신비에 쌓여있습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26절). 별들은 군대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수효대로, 곧 군인들을 점호하듯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며 또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듯 빠짐없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빠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쓸모 없는 곤충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민 13: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연과 민족의 흥망 성쇠를 통해서도 계시됩니다. 큰 권능을 소유한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권능이 아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니느웨와 바벨론은 확고하게 뿌리를 박은 것 같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릴 풀잎과 같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를 지휘하시고 자연계와 영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돈을, 이데올로기를, 명예를,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불같이 너희를 공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진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탈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여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거는 기대

박승휘 목사(서청주 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읽고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고서 청주에서 장남가는 고속버스를 타고서 서울을 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이종운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숭실대학교 김영한 교수님의 '전통적 서구신학에 대한 비판적 한국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신학운동' 이라는 강의입니다.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회자로서 정기적으로 서울에 가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신학 세미나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21세기에는

목회와 신학이 따로 구분되어 지는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함께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인가 새롭게 계획하고 힘차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변화된 가치관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적 흐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교회는 스스로 개혁을 하던가 변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하던가 택일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8학기 동안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의 역할은 지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주제는 바람직한 '교회 지도자상'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교회지도자의 가치관 특히 장로교

회에서는 당회운영 및 지도자의 책임과 자세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존존하고 있는 교회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문제, 청소년과 노인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등을 함께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자기갱신을 통한 강단의 변화 나아가 민족교회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넓혀주며,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귀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롬 경로대학 입학식을 마치고

왕경래 장로(살롬경로대학학감)

먼저 서울교회 살롬 경로대학을 설립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년기관 인생의 황혼이자 내리막이 아니라 원성을 향한 최후의 상승이며 자아실현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속에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 인구의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21세기 노인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이 요구되고 출생과 더불어 생을 다 할때 까지 끊임없이 계

는 소외감과 다양한 노인문제는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젊은세대로 하여금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저 서울교회에 부설기관으로 살롬경로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실버세대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력을 높임으로서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유지 함으로써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저 합니다.

이에 살롬 경로대학의 교육방향은 첫째,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한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게 하고 지도적 역할을 회복하게 한다. 셋째, 지금까지 고루하게 간직하고 있던 사교나 의식을 전환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건강을 유지하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자세확립을 한다. 다섯째, 친교·교양강좌, 취미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생관을 갖게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한다.



속 교육을 받아야하는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 및 독립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이 겪고 있는 역할상실에서 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사제의 권위자를 초빙, 열과성을 다하여 성실히 교육하여 노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 앙

하정자 권사(세 7교구)

새 한마리가
피 묻은 부리로 바위를 쪼는다.
절대 순수의 거자씨 하나 캐기 위해
그연한 순과도 같은 부리로...

그 무모한 새를 두고
그 누구도 어찌
이 맘을하고 패력한 시대를 파수하는
마지막 작은 성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자기도취의 나르시스의 새 한마리가
비상을 꿈꾸는... 허나 날지 못하는
카타르시스의 불구의 새 한마리가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그 상한 부리로
그저 바위를 쪼느라고
가견적 관점에서 증거할 뿐이다.

그러나, 오늘도 새는
피묻은 부리로 바위를 쪼다가
바위에 온 몸이 맥없이 떨어졌다.
결국은 절명하고 말았다.

현대, 바위는
이미 스스로 금이 가 있었고
이 신비에 속한, 놀라운 일은
영원전 새 한마리를 향한
자존자의 예정된
숨겨진 깊은 뜻이 있었다.

변하는 세상, 영원한 가정

정치는(새가정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신 남편, 하나님이 지으셔서 인계해 주신 뼈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 그 가정이 점점 더 빈곤, 불화, 갈등으로 삭막해져 가는 우리의 가정, 붕괴되어져 가는 가족의식,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이 시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행복 넘치는 삶을 일구는 가정을 만들

고, 미래 교회와 세상을 주도할 가정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가정, 비전이 이끄는 가정, 사랑이 영원한 가정을 바라는 커플은 새 가정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번 새 가정부에서는 새로이 조직개편과 집회시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가정부에서 다루어지는 교재의 목적, 다루어지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바라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꿈꾸며...

이현옥(청년부)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중학교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출석했고 작년이 되어서야 제 신앙의 초석이 되어준 서울교회 청년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보다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 좋은 외모 등등의 여러 세상 기준의 것들을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형제와 가정을 이루는 친구, 선배들을 보면서 제 이성관에도 이상전선이 생겼습니다.

말이나 글로만, 또는 특정 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크리스찬이 아닌, 늘 한결같은 주님과 같은 신앙인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하지만 때때로 한없이 연약하기에 쓰러지고 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신앙 생활의 도전도 주는 인생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에 울고 웃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사랑안에 사는 가정을 갖기를 소원해 보기도 합니다. 늘 넘어지고 때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족한 저이기에 하나

님 안에서의 가정생활에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바와 소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Q.T.가 쉽지는 않지만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찬양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힘에 부칠 정도로의 헌신하는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청년의 때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어느 때에도 늘 있어지고 열매를 맺어 믿음의 유산도 남겨줄 수 있는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한 가정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만물이 열매를 맺는 시간에 아직은 여름의 계절을 사는 청년으로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소원하던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는 글도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루어 지는 내용들은 사랑과 결혼, 결혼예식의 진정한 의미, 지혜로운 혼수준비, 결혼식, 신혼여행, 자녀계획, 첫날 밤의 성(性)과 성(聖),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싸움을 건강하게, 신혼부부의 가정경제생활, 그리고 시간관리, 성격차이 발견, 이해 및 조화, 용납 연습, 부부대화, 임신준비, 태교, 신혼부부의 신앙생활 등이 다루어 지며 매 주일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본관 201호 새가정부실에서 결혼 후 5년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8일(목)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현대 음악제에 9월 23일부터 한주간 참여하고 작곡을 발표한다.

■ 이사 ■

- 하극수 성도, 조영자 집사 대치동 삼성 아파트(6249-7416)
- 정무균 집사, 이영희 권사 대치동 은마아파트 12동 402호(562-7263)

■ 개업 ■

- 이재운 집사·이용자 권사(12교구) 용인시 남사면 향초원(난농원) 개원 (031-322-9469)
- 유재원 집사, 사공순 집사(3교구) 낙원떡집개업, 목동 11단지내(653-8551)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허상한 집사, 최재춘 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최희- 25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살롬경로대학 ·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위해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중사회가 평안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새벽 5시 30분

